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에 대한 화해 의지

최원혁
(대진대학교)

目次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갈등 해결책으로서의 조선 건국
3. 포천을 통해 본 화해 의지
4. 회암사를 통해 본 화해 의지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조선의 건국은 한국 역사에서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존재였다. 정신분석학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승화되면 과학과 예술의 무한한 창의성이 되지만 억압되면 트리우마로 변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이다. 오늘날 한국인에게 조선의 건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 일본과 한국을 차별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간주된다. 역사의 많은 기록들에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¹⁾ 그동안 조선의 건국은 한국인에게 승화된 사건이기 보다는 사대주의의 시작과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트라우마에 가까웠다. 이씨조선과 조센징으로 대표되는 일제 시대 이후의 조선관은 동아시아에서 한류가 유독 주목받는 오늘날에야 한국인들에게 비로소 재고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 한류가 유발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트라우마로만 인식되어 온 조선의 건국을 국제적 관점, 특히 조선 건국이 가져온 유례없는 200년간의 동아시아 평화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트라우마의 해결은 대개 억압된 외부환경의 이해에서 해결된다. 그동안 사대주의와 내부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트라우마로만 인식되어 온 조선의 건국 또한 당시의 시대상황 그리고 조선의 건국이 가지고 온 동아시아 평화 곧 동아시아 갈등 해결책이라는 외부 관점을 도입한다면 조선의 건국이라는 트라우마를 승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또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 함재봉, 『한국사람만들기 1』, 에이치(H) 프레스 2020.

2. 동아시아 갈등 해결책으로서의 조선 건국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 제대로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늘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심지어 평가를 불가능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선의 건국은 일본학자나 민족주의학자에게는 과소평가되고 군부시대에는 과대평가되어 왔다. 이에 던컨과 같은 제3자인 서양학자들은 양쪽을 다 비판하며 조선의 건국세력은 고려의 건국세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여 조선 건국의 의미 자체가 부정당하기도 했다.²⁾ 많은 해결책과 같이 제3자의 견해에 의해 사물이 객관화되는 다른 사례와 같이 조선의 건국은 일단 던컨의 견해에서부터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던컨은 신진사대부 세력인 조선건국세력과 고려 권문세족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3성씨만 없어졌음을 밝히며 신구정권교체라는 기존 정론을 부정한다. 결국 조선의 건국 이해는 내부이해보다는 국제관계에서 그 기원과 동기의 주요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국제관계에서 조선 건국을 찾아보는 연구는 주로 사대주의 관점과 외국인으로서의 태조 이성계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사대주의 관점의 연구는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전체 과정을 명에 대한 사대주의 관점에서 본다. 일본 학자와 민족주의 학자는 태조가 왕권 찬탈을 위해 사대했으므로 조선을 이씨 조선이라 불렀다. 반면 최근 연구는 외국인으로서의 이성계를 강조하며 조선개국을 국제정세를 활용한 선택으로 간주한다.³⁾

조선개국을 국제정세의 선택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는 던컨이 제기한 고려-조선 동일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비록 조선의 건국을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조선 개국 전 후 세력은 동일했지만 국제관계는 전혀 달라졌음을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다. 결국 국제관계에서 바라본 태조 이성계의 조선건국은 사대주의와 국제정세의 적응이나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두 입장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두 입장 모두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스스로의 주체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환경에의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국제관계에서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두 입장 모두 간과하고 있는 이성계의 주체적 동아시아의 갈등해결 의지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임진왜란 당시 보였던 명나라의 반응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 보여주었던 반응은 기존 사대관계로만 보아왔던 조선과 명나라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명나라의 반응을 보여준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조선관을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시 조선의 원군요청을 일본과 내통한 조선이 명나라를 칠려는 계획으로 의심하고 군사를 보내려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을 공격하려 했다. 명나라는 조선에 들어가고 나서야 조선의 현실을 알았다. 이는 명나라가 조선과 초기에 맺었던 조선의 사대주의가 단순한 강자-약자의 관계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일종의 계약이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이성계는 유라시아제국이었던 원나라, 전국시대에서 살아남은 일본, 원나라와 대결하던 홍건적 등 세계 최고 군대와 전투하여 모두 승리했던 군대였다. 원나라 신하의 아들이었고 여진족과 친했던 이성계는 당시 원나라 군사의 수준과 내부 사정에 매우 밝아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길 것을 알고

2) 존 B 던컨, 『조선왕조의 기원 고려 조선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역작』, 너머북스, 2013

3) 윤은숙, 蒙元 帝國期 窩持衞家의 東北滿洲 支配 : 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06.

있었다고 한다. 실제 마니교의 중국식 발음인 명교 신자였던 홍건적과 홍건족의 한 일파였던 명태조 주원장은 국가 이름마저 명이라 하고 새 기원을 열었고 이름 지워진 원나라에 승리했다. 위와도 회군 당시 텅 비어있던 요동을 이성계가 점령하고 원과 협력했다면 국가 초기 불안했던 명나라는 원나라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다.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 몽고의 원나라 모두 일시 중국 본토까지 점령했지만 결국 모두 쇠락한 역사 속에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선택은 단순히 정권탈취와 사대주의로만 해석 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실제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윤은숙(尹銀淑) 박사와 몽골계 중국 학자 에르데니 바타르 박사(내몽골대 전임강사)에 의해 팩스 몽골리카 체제의 중심인 북방 유목 제국적 전통을 조선왕조가 의연히 지켜낸 것"이라고 한 연구가 있다.⁴⁾

둘째, 포천의 전장화와 수차를 통한 이양법 개발을 위한 포천에서의 과전법 시행이다.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성리학 국가를 만들고자 한 이유는 성리학보다 성리학을 도입하여 수차와 이양법을 통한 경제 대개발을 이룬 송나라의 첨단기술 도입이라는 학설이 최근 함재봉에 의해 발표되었다. 측우기, 농사직설, 한글창제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활약은 모두 이 수차와 이양법 개발로 이해된다고 한다. 조선 건국은 국제관계 재정립과 그에 따른 내부적 경제개발이라는 오늘날 현대 국가의 관점에서 재해석된다고 한다. 과전법은 이양법 도입을 위한 초기 조치이고 이에 과전법은 포천의 전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던컨이 지적한대로 과전법 또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기에 태조 이성계의 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태조 이성계는 일찍이 포천을 전장(田莊)으로 만든다. 전장은 밭이 딸린 별장이라는 뜻으로 태조 이성계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가로부터 봉록을 받을 때마다 포천에 전장을 만든다. 개성이 수도였던 고려에서 개성과 가깝고 이성계의 발흥지인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태조 이성계는 전장을 만들어 본인의 핵심 세력인 가벌치 군대가 진영을 칠 수 있도록 한다.⁵⁾ 이 때 이성계를 모든 전쟁에서 도운 이지란 또한 청해에 전장을 정한다. 가벌치 군대가 포천을 전장으로 정한 것은 고려와 외국인이었던 이성계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바로 여진족인 함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두 부인을 포천의 각각 다른 곳에 살게하고 실제 위화도회군시 태종 이방원으로 하여금 호위하여 원산으로 떠나게 한다. 서로 다른 곳에 살게한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직도 포천 지역에는 두 부인이 살던 부인터와 궁말이 있다. 동아시아 역사상 여진족과 한국인이 같은 마을에 살았던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계속되었으면 청나라보다 먼저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한다. 조선 개국 후에도 포천은 유사시 언제든지 원산으로 갈 수 있는 대비처로써 군사훈련장으로 역할을 했고 조선 전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포천에서 출생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는 태조 이성계가 늘 고려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위화도 회군 후 정도전과 함께 시행한 과전법도 가장 먼저 적용된 곳이 포천이었다.

셋째, 회암사의 중창이다. 이성계는 건국 후 가장 먼저 한 일의 하나로 무학대사를 회암사의 주지로 보내고 회암사를 행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회암사는 인도 출신 원나라 국사 지공스님이 북경에서 나옹과 무학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건국한 한국에서 보기 드문 국제적 사찰이다. 나아가 화엄사는 안도에서 온 지공이 특별히 중창한 이유가 과거불이 강론하던 곳이라는 배경이 있었다.⁶⁾ 결국 시간적으로는 과거불, 공간적으로는 인도까지 아우르는 갈등해결의

4) 에르데니 바타르, 元·高麗 支配勢力 關係의 性格 研究, 강원대학교박사논문, 2006.

5) 홍영의, 고려말 李成桂의 婚姻關係와 경제적 기반 - 포천 재벽동과 鐵峴의 田莊을 중심으로-한국학 논총45, 2016

6) 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자리가 회암사였다. 따라서 태조는 회암사를 매우 중시하고 회암사를 통해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 문명국으로 만들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위 세 가지 근거 중 첫째 근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둘째, 셋째 관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3장, 4장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포천을 통해 본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 화해 의지

조선 전기 역사의 중심지로 부각 된 곳은 한양과 포천이었다. 포천은 외국인 이성계의 조선 유입시 지지 기반의 거주처였고 조선 시대 내내 조선 왕족의 사냥터였으며 조선 왕조가 망할 때까지 조선 왕가의 사유지가 있었다. 한양은 새로운 왕조의 수도였기에 부각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천의 부각은 의외였다. 물론 예로부터 포천은 함경도, 원산 등지의 물산이 유통되는 큰 장터였다. 실제 포천 송우리는 임궽정이 활약하던 송우 장터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남북문제의 진전에 따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포천은 태조 이성계가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한 대비처로 지정된 곳이다.

왕족 사냥터인 궁마지 뿐 아니라 포천은 태조 이성계에게 다양한 역할을 했다. 먼저 포천은 조선 왕족의 능터이기도 했다. 세조의 능인 광릉은 그 자리가 좋아서 조선의 왕은 세조의 후손들로 이어 갔다고도 한다. 신선이 수련했다는 선단리가 있는 포천의 진산인 왕방산은 무예 훈련장으로 태조 이성계가 건국 전부터 활용하던 곳이지만 건국 후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행차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포천에는 왕이 방문했다는 왕방산, 왕산사가 있다.

다양한 포천의 역할 가운데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해결 의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별초 부대의 주둔지요 전장이라는 점이다. 가별초란 삼별초와 같이 특별히 구성된 별동부대 의미의 사병조직이다. 태조 이성계의 일생에 거친 전쟁에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여진족인 이지란의 부대가 가별초의 핵심 주력이었다. 여진족은 발해가 망하기 전까지는 숙신, 말갈족으로 불리다가 발해 이후에는 여진족으로 불리었다. 금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한국과는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북방민족이었다. 당시 이지란은 여진족의 대표격인 천호였고 태조 이성계는 몽고의 지방수령을 계승한 자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지란과 이성계는 원나라에서 고려로 제후 세력을 변경하는 중이었다.⁷⁾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국제정세에 밝아 원나라에서 고려로 제후세력을 바꾸는 매우 혁신적인 조치를 했고 이성계 집안은 이제 함경도에서 개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했고 포천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부담의 완충지로서 역할을 했다. 포천은 개경과도 가까웠지만 권문세가들이 경계하지 않고 개경에서 함흥으로 가는 요충지였다. 물론 한양 천도 후에는 더 명확한 요충지였다.

태조 이성계의 가별초는 훗날 누르하치의 팔기군과 같이 명나라를 위협할만한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다. 실제 위화도 회군 시 참여했던 규모의 병력은 청나라가 명에 대해 결정적 승리를 한 전투에 참여한 청나라 병사보다 많았다. 더욱이 명원 교체기였던 당시 요동은 무주공산으로 먼저 입성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구

7) 박현모,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나타난 리더십 모멘트 연구, 韓國 政治 研究 21(2), 2012

성하던 원, 일본, 명의 주력부대와 전투하여 이긴 가별초 부대는 요동진입이 무난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다. 당시 왜구를 막아내기도 힘들었던 고려는 비록 일시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과거 금과 요나라의 경우처럼 민족 자체가 절멸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태조 이성계가 대신 택한 것은 세계질서의 유지와 함께 문화강국, 경제강국으로의 선택이었다.⁸⁾ 위화도 회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포천의 전장이었다. 위화도 회군 시 포천의 전장에 있는 가족들을 태종 이방원으로 하여금 순식간에 피신시킨 일은 유명한 사건이다.

금나라나 요나라와 달리,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나라 사례에 나타나는 문화적 우월감이었다. 조선은 적어도 초기에는 명나라에 표면적으로는 사대관계였지만 국호를 조선으로 택하기 위해 일부러 화령과 함께 보낸 사례에서 보듯 내면적으로는 사대주의라 하기 힘들었다.⁹⁾ 몽고의 지방수령 집안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원나라의 중국에 대한 우월감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보다 나은 중앙아시아 문명국 호레즘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대도시를 보고 왔기에 몽골족은 중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갖지 않았다. 몽골족은 오히려 '땅에 엎드려 받이나 가는' 한족을 경멸했다. 원나라 지방행정책임자 집안이었던 이성계 또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려와 조선의 정치세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던컨의 비판은 오히려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배경이 국제관계의 평화유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태조 이성계에게 위화도 회군을 감사해 하던 명나라 주원장은 조선 건국 후 태도를 바꾸어 조선을 위협하여 정도전의 압송을 요청하고 이에 정도전이 요동정벌론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병혁파를 둘러싼 태종 이방원과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나왔을 뿐이었다. 삼국분할이라는 구도를 기획한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태조 이성계의 구도도 오늘날과 같은 조공체계를 통한 한중일의 삼국분할 구도로 보인다.

조선은 건국 후 수차를 통한 이양법 개발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주력한다. 중국과의 토질 차이로 수차개발은 비록 실패하지만 태조 이성계의 삼국분할 구도는 한중일 모두에게 200년간의 평화 시기를 가지고 왔다. 200년간 각 국가의 개성이 성숙되고 오늘날과 같은 동아시아 삼국 간 문화구도의 초석이 이루어진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는 삼한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하였고 고구려 시대 행정구역 이름은 마홀군(馬忽郡)이었다. 삼국시대 초기와 후기에는 백제에 속하였는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포천군은 본래 고구려의 마홀군으로, 명지군(郡)이라고도 하였다. 고구려 때 부른 옛 지명인 '마홀'은 이두문자(文字) 방식에 따른 표기로 '마(馬)'는 '물'로 해석하고 '홀(忽)'은 '고을'을 나타내므로 '물골'로 풀이하는데, 이 지역이 하천과 관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포천(抱川)도 고을이 내를 안고 있다는 뜻의 지명이다. 즉 영평천(川)과 포천천을 안고 있는 물이 많은 고장'이라는 뜻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쟁에서 지형지세를 이용한 승리를 자주 거두었던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과정에서도 보여 주었던 지리에 밝았다. 포천에서 원산까지 연결되는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하기 위해 포천에 전장을 마련하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과정에서 여러 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이성계는 국민과 신하들이 국제관계상의 평화를 원할 때까지 기다린 후, 등극한다.¹⁰⁾ 태조 이

8) 박현모,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나타난 리더십 모멘트 연구, 韓國 政治 研究 21(2), 2012

9) 박현모,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나타난 리더십 모멘트 연구, 韓國 政治 研究 21(2), 2012

10) 박현모,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나타난 리더십 모멘트 연구, 韓國 政治 研究 21(2), 2012

성계는 등극 후에도 임금처럼 앉지 않고 서서 정중하게 신하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위화도 회군 후 과전법의 시행에서 포천은 다시 한번 중심지역으로 떠 오른다. 수차를 통한 이양법 개발은 중국 송나라 경제 대발전의 핵심요인이었고 조선 초기 조선 건국의 대과제였다. 세종의 측우기 개발, 『농사직설』 편찬, 한글창제의 배경은 수차를 통한 이양법 개발에 초점이 모여있다.¹¹⁾ 기존 학설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이양법은 오늘날 반도체 개발과 같은 당시의 국책사업이었다고 한다. 과전법 시행 또한 이양법 개발의 전제였다.

고려 말기의 공양왕 때에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관료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전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사전혁파의 첫 단계로서 전국의 전지 개량에 착수하였다. 이때 조준 등의 주장에 따라 과전을 경기도 내에 국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경기를 확장하여 좌·우도로 나누었다고 한다. 포천은 장단현을 비롯하여 양광도의 여러 현과 더불어 좌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천은 고려 말 과전법 시행의 중심지로 된다. 그 결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흥세력 대표인 이성계와 이지란(통두란)의 농장이 포천에 있었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보다 물이 잘 빠지는 한국 토양의 특질로 수차 도입은 비록 실패하여 의도한 경제개발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리학의 도입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문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계속 유지되어 온 불교식 관혼상제가 조선에서는 주자가례로 모두 바뀌어 문화혁명 후 중국 유교 유적이 모두 파괴된 후 중국에서 오히려 배우려 올 정도가 되었다. 성리학은 일반 기층 민중과 민간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다

한류에 세계가 공감하는 이유로 성리학적 평화 문화를 지적하는 관점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성리학적 구도의 동아시아 갈등 해결의지가 오늘날에는 세계전역에 미치는 셈이다. 실제 당시 조선의 건국은 400년 뒤의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것으로 정도전이 기획한 재상중심의 국가가 유지되었다면 오늘날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최근 일어났던 조선 개국 드라마 붐 속의 정도전 시리즈를 통해 관심이 재고되기도 했다.

포천이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이양법과 수차개발이라는 경제 성장을 통한 동아시아 갈등 해결의지로 볼 수 있는 사례라면 포천 주변의 회암사는 유불선 문화 통합을 통한 동아시아 갈등 해결의지 사례로 나타난다.

4. 회암사를 통해 본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 화해 의지

최근 개관된 회암사 박물관의 여러 활동을 통해 그동안 잊혀졌던 한국사 최대 사찰 회암사의 여러 가지 면모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다. 회암사가 놀라웠던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회암사는 불교배척을 국시로 한 조선에서 개국하자마자 중창한 한국사 최대의 사찰이었다. 둘째 회암사는 당시 원나라 국사라는 세계 최고의 스님인 지공스님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도 최고의 불교사원 나란타사를 모델로 개창한 글로벌 사찰이었다. 셋째 회암사는 지공스님이 과거불의 수행처라고 지정하여 건설된 사찰이라는 점이다. 금강산을 화엄경의 금강산이라 지정하여 중국 회엄종의 3개 종장 법장의 동의를 받아낸 의상대사 이후 회암사는 한국이 세계

11) 함재봉, 『한국사람만들기 1』, 에이치(H) 프레스 2020.

불교 문화의 기원지라고 세계가 인정한 두 번째 사찰이 된다.¹²⁾

포천이 경계를 통한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 화해 의지인데 비해, 회암사는 문화를 통한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 화해 의지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 시행한 첫 번째 조치 가운데 무학대사를 회암사 주지로 임명한다. 회암사 박물관이 개관되기 전의 기존 학설에서 무학대사의 주지 임명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개인적 친분 정도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박물관 개관 후 무학대사가 “무학”이라는 법명과는 반대로 북경까지 유학하고 북경에서 지공과 지공의 제자 나옹스님을 만난 점 등¹³⁾을 통해 회암사는 인도와 중국의 불교를 한국불교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불교의 문화적 통일 의지로 나타난다. 이는 불교문화 국가 일본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갈등 화해의 문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불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불교의 태두였던 지공스님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기 때문이다.¹⁴⁾ 성리학을 국시로 한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를 국제 불교의 중심지로 키우려 한 것은 태조 이성계에게 성리학은 경제 발전을 위한 이념이고 불교는 문화 발전을 위한 이념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의 유불선 통합정책으로 나타난다. 태조 이성계의 행궁과 왕실의 원찰로 대대로 사용된다. 회암사가 한국 최대 사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암사가 기존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행궁 구조로 되어 있고 발굴된 문화재에 행궁에서만 나타나는 유물이 많은 점에서 드러난다. 포천과 산 하나를 경계로 하는 회암사는 대대로 금강산 가는 길목이었기에 함경도로 가는 길목에 포천의 전장을 유치했듯 회암사에는 문화적 전장인 회암사를 유치한 셈이다.¹⁵⁾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에 대한 집착은 이방원에게 실각당한 뒤 실재 회암사에서 수도 생활을 한 것에도 잘 나타난다.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의 손자였던 효령대군의 법회에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원찰로서의 역할이 나타난다.¹⁶⁾ 서슬 퍼렇던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도성 한가운데인 오늘날 파고다 공원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생겨난 배경에는 회암사에서 효령대군이 베풀었던 법회에 나타난 이적 때문이었다고 한다. 무신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성리학을 수용했지만 성리학만으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의 중앙아시아 전통 계승 의지로 나타난다. 회암사 중창의 배경에는 과거불의 기원지라는 점이 강조된다. 회암사를 개창한 인도 승려 지공은 회암사의 지형이 당시 세계 최대 사찰인 인도 나란타의 지형과 닮았다고 하며 이곳이 과거불의 수행처라고 한다.¹⁷⁾ 실제 인도 지공스님은 북경에서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금강산이라고 지명한 봉래산을 찾아가는 길에 회암사를 들린다. 당대 최고 승려인 지공 스님이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금강산이라고 지정한 봉래산을 찾아오고 회암사를 과거불의 설법지라고 한 것은 한국불교사 및 동아시아 불교사 나아가 세계불교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로서 조선 건국에 이보다 더 좋은 의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태조 이성계는 단군을 부활했다. 단군이 한국사에 부각된 것은 의외로 고려말기 원의 세도가 극성을 부릴 때였다. 과거불 이론이 한창이던 신라시기도 단군은 강조되지 않았고 고려말 백문보가 단군을 언급한 이후 행촌 이암 등 단군에 대한 담론이 점차 나타난다. 조선이라는 국명도 연관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전통이 남아있는 여진 지역에서 성장한 태조 이성

12) 龍野沙代, 『金剛山 傳説의 文獻傳承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 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の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17권, 2008년

14) 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の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17권, 2008년

15)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32, 단군사학회, 1997

16) 회암사박물관, <http://museum.yangju.go.kr/site/hasj/main.do>

17)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사연구』17, 2008

게는 기존 고려 권문세가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왔다. 중앙아시아에는 중국과 다른 불교 문화가 있었고 단군 숭배문화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등의 요인으로 태조 이성계는 전국의 산천제사를 막지 않았고 본인 또한 명산대천에서 수행했다. 회암사 주지로 있는 무학대사를 위해 한국불교사상 가장 큰 부도를 만들어 준 데서도 태조 이성계의 불교 수행 및 회암사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무학대사가 한국 전통 종교나 중앙아시아 전통과 연계되는 점은 무학대사의 속성이 영해 박씨로 부도지를 쓴 박제상의 후손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중앙아시아 문화 전통과 단군 신앙과의 연계가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단순히 미래에 국왕이 될 것을 암시한 승려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정도전과 함께 과거 문화의 전승을 통해 미래문화를 기획하는 인물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양 도읍지는 정도전의 뜻에 따라 정해졌지만, 한양 궁궐의 배치는 부도지에 따라 정해졌다는 학설도 제기된 바가 있다.¹⁸⁾

5. 나가며

승화된 트라우마는 승화되지 않은 트라우마와는 반대로 인간의 무의식에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결작 영화의 반전처럼 태조 이성계의 건국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 화해의 의지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시론적인 글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약해서 가설로 제안해 본 글이다.

실제 태조 이성계의 의지대로 한국은 조선 말기에 비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떨어졌지만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정치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류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리학 나아가 동양 정신문화 유산을 잘 보존한 유일한 나라로도 평가받는다. 요, 금, 원, 청은 한때 천하를 제패했지만, 현재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시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 학계는 일본, 중국 및 구미 학계의 영향 속에서 상세한 배경을 검토하지 못한 채, 트라우마의 관점에서만 살펴왔다. 회암사의 발굴, 경제사적 역사해석의 도움으로 이제 조선 건국 트라우마의 승화를 모색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18)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 역사, 2007, 한문화

참고문헌

-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2, 단군사학회, 1997
- 김채수, 『알타이문명론』, 박이정, 2013.
- 김철웅, 「고려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사학지』 32, 단군사학회, 1997
- 염종섭, 「檜巖寺修造名分の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 17권, 2008년.
- 龍野沙代, 『金剛山 傳説의 文獻傳承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서울: 한문화, 2007
-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사연구』 17, 2008
- 홍영의, 고려말 李成桂의 婚姻關係와 경제적 기반 - 포천 재벽동과 鐵峴의 田莊을 중심으로- 한국학논
총45, 2016
- 허흥식, 『고려로 읊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사이트

회암사박물관, <http://museum.yangju.go.kr/site/hasj/main.do>